

해체주의 시각에 기반한
텍스트 기반 매체의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 존 케이지의 강연문 <Lecture on Nothing>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method of text-based media
based on Deconstructivism
-Focused on John Cage's lecture <Lecture on Nothing>-

주저자

최 지원 Choi, Ji-won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 DFA course, Yonsei University
jchoi02@yonsei.ac.kr

교신저자

노 승 관 No, Seung-kwan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 교수 |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kno@hanyang.ac.kr

투고일	2018.09.10	심사일	2018.10.24	게재확정일	2018.10.29
-----	------------	-----	------------	-------	------------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고찰

- 2.1. 해체주의 이론
- 2.2. 텍스트 기반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 2.3. 존 케이지와 <Lecture on Nothing>

3. 존 케이지의 강연문에 대한 해체주의적 해석

- 3.1. 해체주의 전략에 기반한 해석
 - 3.1.1. 산중(dissemination)
 - 3.1.2. 차연(differance)
 - 3.1.3. 흔적(trace)
 - 3.1.4. 안과 밖(parergon)
- 3.2. 소결

4. 결론

참고문헌

Keyword

해체주의, 자크 데리다, 존 케이지, 무에 대한 강연, 텍스트 기반 매체
Deconstructivism, Jacques Derrida, John Cage, Lecture on Nothing, text-based media

Abstract

This paper's purpose is to interpretate John Cage's lecture <Lecture on Nothing> based on Deconstructivism, claimed by Jacques Derrida. Derrida's Deconstructivism can be organized into 4 concepts, dissemination, differance, trace, and parergon. After study, in Cage's lecture, first, dissemination is inherent in expanding the meaning as getting out of pre-existing content and formality's structure. Second, differance's way, which is deferred and supplemented by each reader's experience, is inherent in empty space and process of collision by text's signifier and the element of time and space. Third, 'nothing's meaning and form's repeating process connote the concept of 'trace' that can't define its origin. Fourth, the concept called parergon, which offsets the border of the form called structure and increases meaning, is appearing in this lecture. This paper is significant since it presents potentiality of new communication method that was based on text method by considering Deconstructivism expression methods, which was not attempted yet, through Cage's lecture.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크 데리다가 주장한 해체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존 케이지의 강연문 <Lecture on Nothing>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의 해체주의적 관점을 산중(dissemination), 차연(differance), 흔적(trace), 안과 밖(parergon)이라는 네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한 후 연구한 결과, 첫째, 규정된 내용과 형식을 벗어나 의미를 확장하는 '산중'의 개념과, 둘째, 텍스트의 기의와 시공간적 요소가 충돌하고, 빈 공간이 독자들의 각자의 경험에 의해 지연되고 보충되는 '차연'의 방식이 글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셋째, 내용과 형식의 반복 과정은 '흔적'의 개념을 내포하며, 넷째, 구조라는 형식의 경계를 상쇄시키고 의미작용을 상승시키는 '안과 밖'의 개념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케이지의 강연문을 통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해체주의적 표현 방식들을 고찰함으로써 텍스트 기반의 매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퍼포먼스, 해프닝, 전자 음악 등 여러 작업에서 다양한 소리 층위를 실험하고, 무용과 시각악보, 글 등 형태가 전혀 다른 예술들의 결합을 통해 실제의 개념을 더욱 가깝게 구현하고자 했던 존 케이지(John Cage)의 여러 작업들은 다양한 형식과 장르만큼이나 그 해석 또한 다양하다. 케이지의 작업들은 강의, 시각적 기록물, 소리, 퍼포먼스의 형태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남겨지고 전달되어진다. 또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은 그가 시도하는 여러 매체의 방식들을 통해 시간에 시간을 거쳐 조금씩 드러나거나 가려지기를 반복하는데, 이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정주하지 않고 늘 변화하는 대상을 설명하고자 끊임없이 찾아왔던 해체주의 개념들 중 많은 부분들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케이지는 1961에 자신의 저서 <Silence>에 수록한 <Lecture on Nothing>의 강연문을 통해 기존의 규정된 방식으로는 드러내 보여줄 수 없었던 '무'에 대한 본질의 영역을 관객에게 열어놓는다. 관객으로 인해 지연되고 만져지고 드러나는 흔적 없는 흔적들, 필연적이거나 운명이 아닌 끊임없이 스스로 상이하게 만들고 지연시키며 전치시키는 과정이자 무의 본질에 대한 결론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데리다가 설명한 차연에서의 a에 대한 사유와도 일치하는 의도가 된다. 차연과 차이를 다르게 하는 a로 인해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 흔적에 대한 모험이 이루어졌듯, 케이지의 강연문에서 글쓰기 방식과 책이라는 매체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의미 작용들은 대상의 본질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통해 산중, 차연, 흔적, 안과 밖이라는 4가지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연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글에서 의미의 지연, 의미의 관계, 의미의 수정이라는 연쇄적 과정들이 형식과 내용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케이지가 이야기하는 '무'의 본질에 대한 해석과 이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1960년대 이후 문학, 건축, 순수미술, 디자인,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체 철학의 이론과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서 나타나는 이항 대립적 사유체계와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분석 대상인 케이지의 강연문 <Nothing on Lecture>의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개념들을 고찰하며 이를 기반으로 케이지의 <Nothing on Lecture>에 나타난 해체주의 전략들을 분석하였다. 케이지의 강연문은 1961년 <Silence : lectures and writings>에 실린 <Nothing on Lecture> 원문과 원문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된 <무(無)에 대한 강연>을 함께 수록하여 그 구조와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해체주의 이론

신의 진리를 알고자 했던 고대 서양의 철학은 중세 기독교적 사회로 내려오면서 오랜 시간동안 자기성찰의 주제로 이어져 왔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지적행위를 하는 인간 자신에 의한 인지가 진리이며, 인간의 이성에 객관적 진리가 있다는 '인지'의 개념에 가치를 부여했다. 이후 헤겔의 현상학은 인식론적 방법론이 가진 모순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론의 차원에서 극복하였으며, 절대 이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서향 철학의 이성적 사고와 인식은 니체의 회의주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구조주의는 이러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시도했던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규칙과 틀을 찾아 이를 구조화하려 했으나,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추상적 체계를 추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에 부딪히게 된다. 이후 1960년대 후반, 구조주의의 절대적 진리가 지니는 독선을 지적하고 진리와 개념 사이의 차이,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전체성에서 벗어나 자

아와 개인을 중시하는 탈구조주의가 대두되었다. 해체주의 이론(Deconstructionism)은 서양 철학의 전반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항,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을 무의미한 것으로 비판하며 텍스트의 객관성을 거부하고 그 구조의 개념의 해체를 주장한다. 텍스트를 해체한다는 것은 의미와 함축의 논리의 갈등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그 텍스트가 결코 정확하게 그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 이러한 해체주의 이론은 텍스트로서의 세계와 그것의 현상을 읽는 새로운 관점으로, 말과 글을 포함한 언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석과 의미의 불확실성에 대해 구조, 제도, 체계라는 해석의 패턴화에 의지한 구조주의의 객관화 논리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데리다는 언어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자의적이며 비동기적인 관계로 바라본다. 기의와 기표는 지속적으로 분리되며, 새로운 조합 만들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반복 운동은 그것이 지닌 휘발성으로 말미암아 의미의 불안정성이 초래되며, 동시에 고정되어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개념들은 깨진다. 즉 텍스트가 지닌 의미가 안정적이고 지시적인 대상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대상을 이해한다. 따라서 기호에 따른 의미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모습들의 산물이 되며, 모든 기호는 관계적 특성만이 존재하고, 관계적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것을 무제한적 차이, 차연(differa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데리다의 저서 '글쓰기와 차이', '그라마톨로지', '해체'에서 그는 차연을 비롯하여 산중, 흔적, 안과 밖의 전략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각각의 전략들은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며 상호보완적인 모습으로 해체주의적 사유를 뒷받침한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해체전략들을 기반으로 하여 케이지의 강연문에서 발견되는 해체주의적 시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Christopher Norris, Andrew Benjamin. (1996). 청람 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청람, p.11

2.2. 텍스트 기반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서구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근본적으로 모든 대상은 언어 또는 기호로 치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며,²⁾ 이것은 이성과 감정, 주체와 객체, 정신과 육체,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과 같은 이항(二項)대립적 사유체계에서 출발한다. '로고스 중심주의'는 이러한 이항대립 구조에 있어 어느 한 쪽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객관성과 명료성을 추구해왔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이를 중시하는 로고스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구텐베르크의 금속인쇄술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왔다.

서양의 근대적 사유에 의한 전략인 '의미 분화'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닌 의미를 계속해서 잘게 분화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호를 찾는 것이다.³⁾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불투명성을 명료성으로 이끌었고 말, 글, 활자와 같은 매체의 등장은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했다.⁴⁾ 즉, 이러한 의미 분화를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한 장치가 앞서 언급한 '이항대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 기반의 매체를 대표하는 책에서는 사물과 대상, 기표와 기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라는 이분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책은 순서의 개념을 갖는다. 책을 구성하는 모든 페이지는 순차적으로 정렬되며, 일관된 규칙과 논리를 통해 배열된다.⁵⁾ 이러한 과정에서 '앞과 뒤',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연속적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매체 안에 생성된다. 또한 한 페이지 안에서 분할된 형식적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페이지가 내재하고 있는 형식적 개념과 규칙 안에 '내용'은 종속된다. 즉,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서는 인쇄물이라는 지면의 공간적 제한 속에서 가능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2) 김정탁. (2004). 매체와 의사소통 사상,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7

3) 조도현. (2007). 멀티미디어시대에 나타난 책의 특징 연구: 맥 루한의 미디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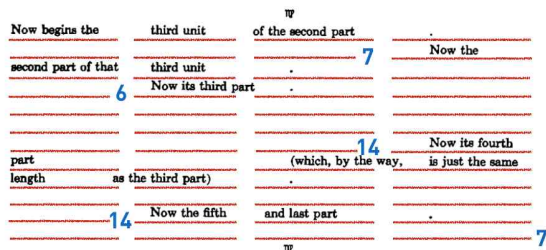
4) 김정탁. (2006). 의사소통 구조를 넘어 텍스트로, 그리고 의식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8

5) 윤보경. (2015). 책 페이지에 구현된 만화의 흑백 연출 의미 분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p.186

전달하기 위한 선형적 구조에 의해 일 방향적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 의미의 추상성을 제거하고 분화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⁶⁾

2.3. 존 케이지와 <Lecture on Nothing>

1961년 출간된 케이지의 첫 저작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에는 1937부터 1961년 사이에 그가 쓴 기고문, 에세이, 강연문 등을 포함한 23편의 글이 담겨있다. 이 글들에서 그는 '텍스트'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리와 소음, 무와 유, 사유와 현상, 우연과 필연, 정확성과 부정확성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위적인 구성과 형식들을 실험한다. 그 중 <Lecture on Nothing(무(無)에 대한 강연)>은 당시 뉴욕에 정착한 케이지가 예술가 모임에서 공개했던 내용을 기록한 글로, 글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배열 방식에 있어서는 마치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어 작곡한 듯한 형태를 취한다. 실제 이 글은 가로 4마디와 세로 12행의 총 48마디를 기본 단위로 취하는 리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48마디로 이루어진 기본 단위(unit)는 7, 6, 14, 14, 7이라는 비율로 마디가 나뉘어 분할에 맞춰 각 문장들이 구성되어 있다.(Fig. 1 참고) 또한 전체적으로 30페이지에 이르는 이 글은 7개, 6개, 14개, 14개, 7개의 단위로 구성된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각 장에서 무와 형식, 구조, 소재, 반복과 연속성, 정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즉, 전체 글은 48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위는 다시 7, 6, 14, 14, 7의 비율로 분할된 48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케이지는 이를 각각 대우주와 소우주로 정의했다.



[Fig. 1] 7, 6, 14, 14, 7개의 마디에 따라 문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위

6) 조도현. (2007). 위의 책, p.40

7, 6, 14, 14, 7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원리를 통해 추출해낸 것으로 주역은 당시 '선(禪)'사상에 심취해있던 그가 자신의 작업 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할 때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즐겨 사용하던 우연의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에서 추출한 리듬을 글 전반에 녹여냄으로써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구조, 소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무에 대해 설명해감으로써 이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생각하는 무의 개념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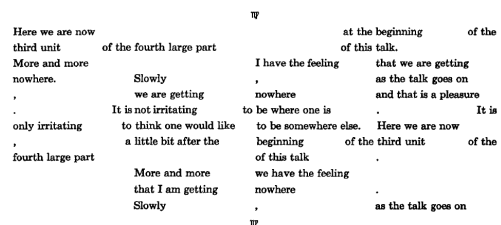
3. 존 케이지의 강연문에 대한 해체주의적 해석

3.1. 해체주의 전략에 기반한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던 데리다의 산종, 차연, 흔적, 안과 밖의 전략들을 기반으로 하여 케이지의 강연문에서 발견되는 해체주의적 시각들을 분석한다.

3.1.1. 산종(dissemination)

산종이란 종자가 출생지로부터 멀리 여기저기에 흩뿌려지는 것으로, 데리다에 의하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처음 사용된 장에서부터 떨어져나가 곳곳이 흩어지고 새로운 의미작용을 해나감으로써 의미의 영역을 무한히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의성 또는 텍스트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것의 재 표상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즉, 의미는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전과 부재간의 끊임없는 교차를 통해 무한한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산종은 모든 사항을 잠재적으로 보충하고, 본질적으로 무한히 치환케 하는 이론으로 산종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혼자 있을 수 없고 상호 의존 및 보충하여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Fig. 2] 7, 6, 14, 14, 7 비율의 문장 전환 규칙에서 벗어난 모습

앞서 언급했듯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Lecture on Nothing>은 5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무와 형식, 구조, 소재, 반복과 연속성, 정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각 장은 7개, 6개, 14개, 14개, 7개의 단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 형식은 다시 7마디, 6마디, 14마디, 14마디, 7마디를 기준으로 문장을 전환해나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케이지는 이 글을 전개하는 동안 이러한 형식 구조를 때로는 유지하고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예를 들어 <Fig.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존에 정해놓은 비율의 규칙을 벗어나 8, 13, 15, 8, 4마디를 기준으로 문장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형식구조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글은 크게는 무와 형식, 구조, 소재, 반복과 연속성,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해놓았지만, 정해진 각 주제의 영역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넘나들며 전체적인 내용이 얼키설키 뒤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However,	it oc-curs	to me to say more	about structure
.	Specifically	this:	We are
now at	the be-ginning	of the third part	and that part
is not the part	devoted	to structure.	It's the part
about material.	But I'm still talking	about structure.	It must be
clear from that	that structure	has	no point,
as we have seen,	form	has no point either.	Clearly we are be-
ginning to get	nowhere	.	and,
	Unless some	other i-dea crops up	a-bout it that is
all I have	to say about structure	.	.

[Fig. 3-1] 소재에 대한 주제가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

하지만,	구조에 관해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떠올랐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큰 부분의	시작에 있고	이 부분은
구조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소재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구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구조에는	요점이	없으며,
지금까지 봐 온 것처럼, 형식에도	요점이 없음이 명백하다.	확실히 우리는	또,
어디로든 나아가지	못하기 시작하고 있다	.	.
	구조에 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르지 않는 한
여기까지가 내가 구조에 관해 말하고 싶은 전부다.	.	.	.

[Fig. 3-2] 소재에 대한 주제가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한글번역본)

예를 들어 <Fig. 3-1>과 <Fig. 3-2>의 부분은 '소재'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로 계획되어 있던 3장이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는 2장에서 미처 끝내지 못했던 '구조'에 대해 여전히 이야기한다. 가로 4마디와 세로 12행을 하나의 기본 단위 및 그리드로 규정한 후 주역 원리를 통해 7, 6, 14, 14, 7이라는 비율 형식을 결정

한 후, 각 형식의 틀에 특정 주제를 부여하여 내용을 종속시키며, 이에 맞춰 글을 써내려가는 듯 해보이지만 실제 케이지는 이 규정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드를 이탈하여 각 형식과 내용은 서로 침범하고 교차하며 그로부터 의미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과 뒤',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연속적 개념들은 해체된다. 구조와 내용이라는 특정 대상을 명확히 지시하거나 구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분명하고 흩어지게 함으로써 그 경계를 지우며 의미하는 바를 점차 확장되도록 한다. 이 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의미가 고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의미가 직조되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 전략은 어떤 고정된 중심을 거부하고, 잠정적으로 정해진 위치들이 끊임없이 떠돌면서 어떤 공간을 만듦으로써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공간 구성은 모든 것들이 고정되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가변적 위치에서나 가능하다.⁷⁾ 이와 같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충하면서 무한히 치환되는 산중의 방식은 텍스트 기반의 매체 안에서 관습적 방식으로 읽혀졌던 기존의 글쓰기의 형식을 해체시키고 책의 경험과 충돌하며 다시 맞물려 순환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끊임없이 생산되도록 한다.

3.1.2. 차연(differance)

데리다는 자신의 저서 '해체'에서 차연(differance)에 대해 차이를 의미하는 difference에서 e를 a로 교체하여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정의한다. 데리다는 "차이와 차연, 즉 e와 a로서 표시되는 차이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감각에 속하지 않는 체계만을 조회하도록 허락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말해준다."⁸⁾ 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음성중심주의적 사고는 스스로 해체되며, 궁극적으로는 철학의 기저가 되는 이원 구조, 감각과 이상이라는 대립 구조를 저항하는 체계를 차연의 개념을 통해 암

7) 김정탁. (2006). 의사소통 구조를 넘어 텍스트로, 그리고 의식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28

8) Jacques Derrida. (1996). 김보현 역, 해체, 문예출판사, p.122

시하고 있다. difference는 '다르다(differ)'라는 의미와 '연기하다' 또는 '지연시키다(defer)'라는 의미를 모두 함유한다. 이것은 차연은 차이와 지연을 모두 작동시킬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만의 의미만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차연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difference라는 텍스트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Fig. 4] 5장의 2번째 단위 부분

강연문의 4장에서는 반복과 연속성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을 이루고 있는 14개의 단위는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며 초조하지 않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변주되며 구성된다. 여기서 'we are getting nowhere and that is a pleasure.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며 이는 즐거운 일이다)'라는 텍스트는 소쉬르가 설명했던 기의만으로는 규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며'라는 단어의 의미에 상응하지 않는 행위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할 때, 책을 구성하는 페이지의 공간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전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시각적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40분이 소요되는 이 강연 중 약 17분의 시간이 이 4장의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 '흘러가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제된 의미의 텍스트는 이 강연문의 시공간적 특성과 충돌하며 단어가 함의하는 바가 모호해지고 언어의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이 강연에서 재현하려는 현존의 유보를 이끌어낸다.

불확정성은 미완전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해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며 그 의미들을 산중시키는 해체주의적 특성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의미'란 주관적인 허구적 구조물로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띄게 될 때, '의미'는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 의미의 불확정성은 '차연'의 해체전략을 토대로 형성되고, 모든 개념들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키며 상대적인 개념하에 체계를 유지해나가게 된다. 불확정적 개념을 내포한 페이지의 여백은 의미를 담지하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5번째 장의 첫번째와 두번째 단위에서 채워지지 않은 텍스트 공간은 본연의 자기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지만, 모든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차연의 개념을 반영한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고, 현존하면서도 부재하는 불확정적인 상태로서 빈 여백의 공간은 독자 각자의 경험 안에서 그 의미가 지연되고 보충된다.

3.1.3. 흔적(trace)

데리다는 흔적을 용도란 말에 비유하며, 용도란 말로 사유되어 고유하게 남는 것은 용도가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뿐이라고 말한다.⁹⁾ 이러한 용도는 필연성을 가지며 운명과도 같은 것인데, 용도로 인해 존재가 결정되는 순간 다시 폐쇄된다는 점을 볼 때 서구 형이상학적 사고에 예속되며, 차연이라는 말과는 그 범주와 방향성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운명 안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용도와는 구별되는 흔적은 부여될 모든 결정과 이름을 피해버린다. 그 자체로 나타날 수 없으며 고유한 본질이 없다.

이러한 흔적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는 일반적 개념을 가진다. 하지만 데리다가 말하는 흔적은 존재의 구조, 존재의 드러남에 선행하며 보다 근원적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흔적은 단순히 기원의 소멸이 아니라 기원이 소멸조차 하지 않았던 것, 기원이 일찍이 형성되었던 것은 비 기원, 즉 흔적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함으

9) 위의 책, p.153

로써 흔적은 기원의 기원이 된다." 또한 "흔적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순수작용이다. 순수한 흔적은 차연인 것이다."¹⁰⁾ 즉, 스스로 나타날 수 없는 흔적은 현상 속에서 스스로를 연기시키고, 고유한 위치가 없으며 자체를 현전시키지 않는다. 즉, 흔적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차이를 낳게 하는 순수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연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Lecture on Nothing>의 1장에서 케이지는 무와 소유함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우리의 시가 우리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자각이며, 그러므로 무엇이든 즐거우며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는 흘러가는데 이러한 과거가 다시 돌아와 현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그것을 우리가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¹¹⁾ 그에 의하면 과거를 소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복이겠지만, 과거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반복이 아니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관점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매 순간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제시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연속적이지 않고 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강연에서 내용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반복 과정'은 무엇을 기원이라 말할 수 없으며 순수한 흔적으로 인해 서로의 의미작용을 상승시키는 행위이다. 각 문장의 의미가 지연되면서 다른 의미와 관계하도록 만들고, 이런 의미는 나중의 의미에 의해 다시 수정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연쇄 과정은 기호들 간에 또 다른 기호들의 흔적을 담고 있어 끊임없이 복잡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 데리다가 설명하는 흔적의 개념이다.

흔적은 가시적이고 음성적이며 문자적인 어떤 것에도 의존 및 종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흔적은 이러한 것의 조건이 된다고도 이해할 수 있

겠다. 데리다에 있어 반복은 단순한 대상의 모방으로서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 이전에 반복 없이는 존재하는 어떠한 기원도 있을 수 없다는 '기원에 있어서' 부터의 반복을 의미한다.¹²⁾ 흔적은 이러한 반복과도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 생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흔적은 어떠한 고정된 의미도 없으며 일정하지 않다.

3.1.4. 안과 밖(parergon)

데리다는 그의 저서인 '회화에서의 진리(The Truth of Painting)'에서 에르곤(ergon)과 파레르곤(parergon)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체론을 주장하였다. 파레르곤은 주변을 의미하는 단어인 파라(para)와 작품을 뜻하는 단어 에르곤(ergon)의 합성어로, 주요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가리킨다. 미술에서는 파레르곤을 그림의 액자와 같이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틀 자체는 일종의 경계이지만 텍스트의 안과 밖 어느 곳에 속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파레르곤을 에르곤, 즉 완성된 작품에 반대되며, 옆에 있고 동시에 부착되어 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작품 구성에 관여하고 작품의 구성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한다.¹³⁾ 즉 외부에 있는 것도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며, 외부에 있으면서도 은밀히 내부에 간섭하는 것이 파레르곤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비로소 작품을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는 로고스 중심주의가 안과 바깥이라는 이항대립 구조에서 안을 바깥보다 가치를 부여하려 했던 방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¹⁴⁾

케이지가 자신의 강연문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애매한 경계이자 파레르곤에 해당한다. 그의 글 전반에 걸쳐 독자로 하여금 구조와 내용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그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결국 이 글을 읽어나가는 동안, 구조가 곧 내용이며 내용이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10) Jacques Derrida. (2010). 김성도 역, 그라마틀로지, 민음사, p.168
11) John Cage. (2014). 나현경 역, 사일런스: 케이지의 강연과 글, 오픈하우스, p.134

12)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p.384
13) Jacques Derrida. (1996). 김보현 역, 해체, 문예출판사, p.444
14) 김정탁. (2006). 의사소통 구조를 넘어 텍스트로, 그리고 의 식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27

이 강연은 텅 빈 컵과도 같이 언제라도 무엇이든 채워 넣을 수 있다. 이대로 계속하다 보면, (누가 알겠는가?) 강연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만약 떠오른다면, 내버려 두어라. 잠깐 스쳐 지나간 무엇처럼 여행 중에 창문으로 스쳐 지나간 무엇처럼 여기는 것이다. 캔자스를 지나고 있었다면, 그 무엇은, 당연히, 캔자스다.¹⁵⁾

그는 구조 안에서 어떤 말을 하든 큰 차이는 없으며, 이러한 강연을 언제라도 무엇이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텅 빈 컵에 비유하기도 한다. '텅 빈 컵에 넣어두는 무엇'에서 '텅 빈 컵'이란 구조를 의미한다. 텅 비어 있으므로 그 내용물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범주가 되는데 이는 '종속'시키기보다는 '자유'와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생명' 없는 구조는 죽은 것이지만, 구조 없는 생명은 목격된 바 없고, 순수한 생명은 구조 안에서 구조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다.¹⁶⁾

또한 앞서 언급했듯 그는 '구조'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장을 넘어가며 그 구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세 번째 장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자신이 이 글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7, 6, 14, 14, 7라는 비율의 '구조' 안에서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안과 밖으로 넘나들기도 하면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구조'라는 형식 자체가 엇매일 것이 아니라 '구조'라는 내용을 '구조'를 통해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창문을 프레임 장치로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은유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창문은 명료화된 것(에르곤)과 명료화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즉 보이지 않는 가치들까지도 동반하는 파레르곤의 의미를 함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강연에서의 구조 역시 알

베르티가 이야기하는 창문과 같은 공간이며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써 작동한다. <Lecture on Nothing>의 강연을 읽으며 흐름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그 곳이 구조인지 내용인지,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을 마주한다. 이러한 내용과 구조를 넘나드는 움직임으로 생각의 흐름 자체를 이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강연문에 나타난 구조를 구조로써 설명하는 방식 자체를 파레르곤이라 규정할 수 있겠다.

3.2. 소결

[Table 1] <Lecture on Nothing>에 나타난 해체주의 전략들

해체주의 전략	존 케이지의 강연문 <Lecture on Nothing>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전략들
산중	7, 6, 14, 14, 7의 구조를 벗어나 각 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벗어나
차연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며 이는 즐거운 일이다' 라는 텍스트와 시공간적 요소의 충돌 여백의 의미 구성
흔적	소유하지 않는 것은 반복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무는 흔적과 같음 7, 6, 14, 14, 7의 기원 없는 반복은 서로의 의미작용을 상승시키는 흔적의 역할을 함
안과 밖	구조와 내용의 예매한 경계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구조,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내용은 채워짐을 통해 모습이 드러나는 텅 빈 컵과 같음

} 구조 형식과 내용을 넘나들며 서로 의미를 보충하는 상호작용이 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짐

데리다가 제시한 해체주의 개념을 기반으로 케이지의 강연문을 분석해본 결과, 산중, 차연, 흔적, 안과 밖(파레르곤)의 전략들이 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역 원리를 통해 추출한 7, 6, 14, 14, 7의 형식구조와 각 장의 지정된 내용을 벗어나 특정 대상을 명확히 지시하거나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지게 함으로써 경계를 지우고 의미를 확장하게 하는 산중의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텍스트의 기의와 시공간적 요소의 충돌 하는 과정과 빈 여백의 공간에서는 독자 각자의 경험과 맞물려 그 의미가 지연되고 보충되도록 하는 '차연'의 방식이 내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에 대한 문장 내용과 형식의 반복 과정은 무엇을 기원이라 말할 수 없는 '흔적'의 개념을 내포하며, 구조라는 형식을 넘나들며 경계를 상쇄시키고 의미작용을 상승시키는 '파레르곤'의 개념 또한 이 강연문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John Cage. (2014). 나현경 역, 사일런스: 케이지의 강연과 글, 오픈하우스, p.134

16) 위의 책, p.138

4. 결론

데리다는 언어는 체계 속에서 미완전성이나 비결정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언어로 표현되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지연되고 스스로 보충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의 산물이라 주장하며 모든 의미와 체계의 결정에 있어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명료하기 보다는 추상적으로 작동하므로, 형식과 내용의 이항 대립적 사유체계와 로고스 중심주의적 사고를 고스란히 담아왔던 책이라는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하지만 1961년, 케이지의 강연문 <Lecture on Nothing>에서의 글쓰기 방식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데리다의 산중, 차연, 혼적, 안과 밖의 이론들이 시도되며, 의미의 지연, 의미의 관계, 의미의 수정이라는 연쇄과정과 끊임없이 복잡한 구성을 발생시킨다. 이는 데리다가 주장하는 본질에 이르기 위한 이상적인 상호작용이자 교감의 과정으로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 있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텍스트 기반의 매체에서 시도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의미에 대한 선형적 명료성에서 총체적 즉각성으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서 융합으로, 실재와 비실재의 구분에서 그 경계의 소멸로 나아가게 한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와 객체의 고정적 관계는 무너지고, 융합적 관계로서 서사는 다시 쓰여진다. 즉, 표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공유의 대상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방식은 교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교감으로 이르는 과정을 모색하는 확장의 측면으로 인식해야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산중, 차연, 혼적, 안과 밖이라는 전략을 통해 데리다가 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해체의 방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새로운 매체 기술이 자리하고 있지만, 1960년대의 케이지가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매체를 통해 시도한 해체주의적 표현 방식들은 새로운 매체 기술로 가는

여정에 있어 매체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사유를 뛰어넘는 시도라는 면에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 Christopher Norris, Andrew Benjamin.(1996). 청람 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청람.
- Jacques Derrida.(1996). 김보현 역. 해체. 문예출판사.
- Jacques Derrida.(2010). 김성도 역.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 John Cage.(1961).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 Wesleyan University Press.
- John Cage.(2014). 나현경 역. 사일런스: 케이지의 강연과 글. 오픈하우스.
- 김정탁 (2004). 매체와 의사소통 사상.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0, 345-349.
- 김정탁 (2006). 의사소통 구조를 넘어 텍스트로, 그리고 의식으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6, 9-36.
- 김정탁 (2009). 주체와 객체의 융합 조건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5(2), 2009. 12, 101-141.
- 윤보경.(2015). 책 페이지에 구현된 만화의 흑백 연출 의미 분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5. 9, 177-209.
- 조도현.(2007). 멀티미디어시대에 나타난 책의 특징 연구 : 맥루한의 미디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김정탁 (2009). 주체와 객체의 융합 조건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5(2), p.115

